9강 금강경의 윤리

(1교시)

◆ 금강경의 윤리

※ 학습목표
이타행의 뜻과 그 실천의 이유를 이해한다.

▲ 금강경의 세계관
금강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가 사실상 공허한 것이고 곧 없어진다고 말한다. 이 표현은 존재와 대립되는 무(無)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은 존재를 부정하는 무까지도 부정되지 않으면 또 다시 집착에 빠진다고 본다.

* 참고서적: 『인도철학사상』 (원의범/ 집문당)
『절대무의 견성철학』(코사카 쿠니즈쿠/ 심적/ 장경각)
『선의 연구』 (니시다 기타로/ 서석연/ 범우사)

▲ 이타행
나(我)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경지는, 명상의 반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이타행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금강경은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보시(布施)가 깨달음의 관건이다. 이때 보시란 다름 아닌 내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집착 없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三輪空寂).

▲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상에 머무르지 않은 베풀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상(相)이란 일체의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행위의 과정, 결과가 바로 깨달음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행위, 낮추는 행위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 부정의 논리

※ 학습목표
부정의 논리를 이해한다.

▲ 부정의 논리
자기를 비우는 것을 긍지로 여기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가 "부정의 논리" 다.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부정의 논리가, 한문의 즉비(卽非)라는 단어와 시명(是名)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나타난다. 즉 "곧 ...아니기에...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에서 다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부정)로 이어지고 그리하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긍정)의 논리와 동일하다.
이 논리는 금강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사상" 의 핵심이다. 그 핵심이란 다름 아닌, 끊임없이 대상에 집착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철저성이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 이야 말로 공(空)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 선악의 저편
금강경은 내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발상으로부터 불행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선과 악에 대한 시시비비에서 벗어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주객, 선악, 삶과 죽음의 저편에서 나오는 행위의 결과(마음의 안정)라고 말할 수 있다.

www.artnstudy.com

(3교시)

◆ 절대부정성

※ 학습목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을 이해한다.

▲ 즉비의 논리
「 "부처가 말하는 반야파라밀은 반야파라밀이 아니다 그리하여 반야파라밀이다(佛說般若波羅密 卽非般若波羅密 是(名) 般若波羅密)"
"여래가 말하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그리하여 세계이다(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부처가 말하는 먼지는 먼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먼지라고 하는 것이다(佛說微塵衆 卽非微塵衆 是名微塵衆)" 」

석가모니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문전걸식을 하는 부처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을 사는 삶" 혹은 "죽음 앞에서의 삶"이 바로 공의 논리, 즉비(卽非)의 논리다.
마치 숫자 1이 숫자 0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듯이, 있는 모든 것은 없음을 배경으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있는 것의 근거는 없음이며, 없는 것의 근거 또한 있음이다. 있음과 없음의 상보성을 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정을 통해서만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산은 산이다. 하지만 산은 산이 아니기에 비로소 산일 수 있으며 물은 물이다 하지만 물은 물이 아니기에 물일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숫자 1이전의 0처럼, 없음과 있음의 상호성 혹은 있음도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절대부정성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간다."

주어(실체) – 술어 (속성): 아리스토텔레스 (추상적 보편성); 명사적 논리
주어(속성) – 술어 (실체): 헤겔 (구체적 보편성); 동사적 논리
주어(속성) – 술어 (속성): 하이데거 (생활세계적 보편성); 존재의 논리
주어(부정의 속성) – 술어 (부정의 속성): 니시다 (무체험의 보편성); 공의 논리」

새는 변함없이 날고 단지 그 날개 짓은 순간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새는 언제나 우리의 경험가운데 있는 새일 뿐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새의 존재는 날 때에만 새일 수 있으므로 지금 저기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날아가는 모든 존재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헤겔). 하지만 우리는 새와 날아감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새가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가고 있는 경험을 생활세계 속에서 간직하고 있기에, 우리는 새가 날아감을 비로소 볼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하이데거). 있는 모든 것은 없음을 배경으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하여 새는 날아간다. 하지만 새가 날아가지 않기에 비로소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니시다)

www.artnstudy.com

www.artnstudy.com